

추석연휴 세균성 식중독 주의하세요

광주 5~9월 설사질한 검출 급증...시 보건연구원 주의 당부 음식 조리후 2시간 이내 섭취하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광주에서 세균성 설사질한 검출률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평소보다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는 추석 명절 때면 어김 없이 식중독 질환을 앓는 사례가 잦아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명절 기간 음식물 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음식물 섭취와 철저한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

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및 지역 내 협력 병·의원과 공동으로 수행한 설사질한 병원체감시사업 결과, 세균성 설사질한 검출률은 5월 16.4%에서 6월 36.5%, 9월 현재 51.7% 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주요 원인병원체는 병원성대장균(46.8%), 살모넬라균(28.6%), 캄필로박터균과 황색포도알균(10.4%) 등의

순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는 7~9월(325건/1만1153명)이었으며, 원인병원체는 설사질한 병원체감시사업과 유사하게 병원성대장균(39.4%), 살모넬라균(18.3%), 캄필로박터 제주니균(10.3%) 순으로 검출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초가을이면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가을에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음식물이 상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추석 명절에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두거나 조리해둔 음식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이내 섭취하는 등 조리수칙 준수 및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기혜영 수인성질환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 소독으로 교차오염방지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식중독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사랑의 쌀' 나눔행사

영구임대 아파트 6개소 10kg들이 340포대 전달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최근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내에 거주하는 유공자, 독거노인 등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2008년부터 매년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 나

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추석에도 지역에서 생산하는 백미 10kg 340포를 복지관에 전달했다. <사진> 노경수 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추석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우리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냈으면 한다"며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취약계층 집수리 재능나눔 봉사활동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추석을 앞두고 거주 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사 기술운영처 직원 10여 명은 지난 2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인 A씨의 집을 찾아 낡고 오래된 집 곳곳을 수리했다. <사진> 직원들은 또 출산을 앞둔 A씨가 깨끗한 환경에서 아기와 몸조리를 할 수 있도록 조명과 콘센트 등의 전기시설 교체, 주방 싱크대 교체, 욕실 세면대 설치, 도배·장판 교체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같은 날 차량운영처 직원 10여명도 서구의 기초생활수급자 B씨의 집을 찾아 낡아 위험한 전기시설을 개보수하고 주택과 인근지역에 대한 방역작업도 했다. 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가



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력을 활

용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은 "코

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작은 힘이나마 꾸준히 봉사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조원대 광주시 금고 쟁탈전 '4파전'

광주·국민·농협·하나은행 경쟁

6조원대 규모의 광주시 금고 운영을 놓고 금융기관 4곳이 도전장을 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 금고 운영 기관 신청 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광주은행, 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오는 10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지정하고 11월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금고 약정 기간은 2021년부터 4년이다. 평가 결과 1순위는 일반·특별 회계 10개와 지역개발 기금을 담당하는 제 1금고

로, 2순위는 특별 회계 4개와 기금 17개를 담당하는 제 2금고로 지정한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과 예금 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올해 광주시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 4조5673억원, 특별회계 1조1451억원, 기금 4283억원 등 총 6조1407억원이다. 현재 시 금고는 광주은행이 제 1금고, 국민은행이 제 2금고를 맡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공공형 어린이집 9곳 추가 선정...총 94곳

광주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9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해 국공립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광주에서 모두 94곳으로 늘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3년 동안 교사, 아동현원, 반 수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운영 실적에 따라 재선정될 수 있다. 교사들은 국공립 1호봉 이상 급여를 지급받고 부모에게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료를 받아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상무소각장, 온라인 문화스튜디오로 변신

12월 15일까지 공연장 제공

광주시는 "폐쇄된 상무소각장을 12월 15일까지 온라인 문화스튜디오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위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무대에 설 기회가 줄어든 지역 예술가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있다. 상무소각장에 영상, 음향, 조명 등 시스템을 갖춘 무대(가로 14.4m, 세로 8.4m, 높이 6m)를 설치해 음악, 댄스, 버스킹

등 다양한 유형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10월 6일 오후 7시 오프닝 공연에 이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공연이 열린다. 매주 국악, 재즈, 통기타, 합창단, K-POP 등 다채로운 주제에 적합한 신청자 중에서 공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연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팀은 공연 예정일 2주일 전부터 이메일(onlinestage@gana2.com)로 신청하면 된다. 공연자는 대관 사용료 없이 무료로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공연 기회와 송출·녹화된 영상의 원본·편집본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 관람 및 방청은 금지된다. 공연 현황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소각장 문화스튜디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상무소각장에서 참여형 문화 향유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0년 9월 문을 연 상무소각장은 2016년 폐쇄되고 문화 재생 공간으로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인공지능 종합지원 멘토단 떴다

전문가 80명 참여 기업 지원

광주에 등지를 튼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을 지원할 멘토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지난 25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인공지능 종합 지원 멘토단 발대식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멘토단은 기술, 창업·경영, 비즈니스, 법률·특허 등 4개 분야, 80여명으로 구성됐다. 국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AI 기업 대표, 변호사, 변호사, 공인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멘토단은 기술·사업 모델 개발, 자금 조달, 시장진출 전략 구상, 특허 출원 등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2개월 이내 수시, 6개월 이내 정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에 주력하는 광주시는 33개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했으며 이 가운데 21곳은 광주에 법인이나 사무실을 마련했다. 전용성 광주시장은 "인공지능 종합지원 전문가 그룹인 멘토단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체계와 기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

